

현대·기아차 - 中 바이두 전략적 협업 강화

파괴적 혁신으로 '미래車' 선도

차량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 등
車 지능화 분야 4개 동맹 결성
“커넥티드카 시대 앞당길 것”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百度)와 전략적 협업을 보다 강화해 미래차 기술 경쟁력에 '파괴적 혁신'을 더한다.

현대·기아차는 10일 중국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양사의 협업을 격상시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자동차 산업의 프레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커넥티드카 시대를 앞당겨 고객이 경험해 보지 못한 혁신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공통의 목표와 도전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로 양사는 차량의 지능화와 연결 추세에 대한 공동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협업 분야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사물인터넷(IoT) 등 4가지다.

두 회사는 먼저 지도와 빅데이터, AI, 각종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자연어 인식 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바이두의 음성인식 기술은 중국어 방언의 성조 차이까지 완벽히 구분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소음 속에서도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는 현대·기아차의 기술이 결합해



바이두의 커넥티드카사업부 수완 총책임자(왼쪽)와 현대·기아차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 추교웅 이사(오른쪽)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말로 차량의 편의장치를 제어하는 다양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또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개발 경쟁이 뜨거운 차량용 AI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차량용 AI 로봇은 운전자와 음성으로 의사소통하며 차량의 운행을 제어하는 서비스다.

두 회사는 이 서비스를 '샤오두'(小度)로 명명하고 이달 4일 중국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바이두 AI 개발자 대회' 때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기아차의 신형 '즈파오'(한국명 스포티지) 대시보드에 장착된 시제품 단계의 'AI 샤오두 로봇'은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스크린에 표시해 기쁨이나 난감함 등의 감정을 표현하며 차량 탑승자와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샤오두는 앞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운전자와 차량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날씨나 뉴스, 질의·응답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와 개인 스케줄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음성 명령을 통해 내비게이션, 공조시스템, 미디어, 도어 개폐 등 차량의

주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또 카메라로 운전자를 인식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음운전이나 운전 부주의 등을 인지해 경고도 한다.

두 회사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홈투카'(Home-to-Car)와 차에서 외부 생활공간을 제어하는 '카투홈'(Car-to-Home)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추교웅 현대·기아차 인포테인먼트개발실장은 “IT 기술이 자동차 산업과 결합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려는 노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커넥티드 카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완 바이두의 커넥티드카사업부 총책임자는 “바이두는 차량 지능화 기술과 다양한 솔루션을 파트너사들에 제공하면서 자동차 생태계를 주도해왔다”며 “이번 현대·기아차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화질 3배 높은 영상통화 첫 선

KT 풀 HD급 코덱 HEVC 적용
갤S9·S9+ 등 신규단말에 제공

KT가 이동통신망에 HD급 영상통화 코덱 HEVC를 적용하고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HEVC는 고품질영상 코덱으로 고화질 영상을 화질 손실 없이 작은 용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 전송 기술이다. 기존 영상통화 서비스에 적용돼 있는 H.264 코덱 대비 두배 높은 압축률을 가진다. HD급 영상 전송 시에도 품질 손실 없이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KT는 LTE 상용망에 HEVC 코덱을 적용했다. 갤럭시 S9·S9+ 등 HEVC 코덱을 지원하는 신규 단말로 영상통화를 하면 영상 품질이 기존 대비 세배 이상 좋아진 HD급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고객 간 H.264 코덱을 이용한 영상통화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던 영상 화질은 SD(480×640)급이었다. KT는 이번 HEVC 코덱 적용을 통해 제공되는 고화질 영상통화는 HD(720×1280)급으로 대역폭은 두배, 화질은 세배 이상 증가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영상 품질 향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KT는 고객에게 향상된 품질의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HEVC 코덱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KT가 이동통신망에 풀HD급 영상통화 코덱 HEVC를 적용하고 초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위해 무선 자원을 고정으로 할당했던 기존 영상통화 서비스와 달리 HEVC 코덱을 자동 인식해 무선 자원 대역을 유동적으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KT 이동통신망을 개발하고, HEVC 코덱 적용에 성공했다.

KT는 이번 LTE 이동통신망에 HEVC 코덱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5G 상용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다 실감 있는 5G 기반의 AR·VR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서창석 전무는 “KT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만의 혁신 기술과 끊임 없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차가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전국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썸머 워크' 렌탈 이벤트를 진행한다.

디자인·연비 실용성은 '굿~', 힘은 '글썸'



현대 '어코드 하이브리드'

엔진 최소화 통해 연료 효율성 높여
EX-L 4240만원·투어링 4540만원



현대 어코드 하이브리드 주행모습.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갖춘 현대의 중형세단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의 편견을 깨고 연비는 물론 강력한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

현대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약 1000대 수준의 누적 계약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마이더스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진행된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시승행사를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시승은 마이더스 호텔&리조트를 출발해 춘천을 경유하는 약 12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1.5 터보와 2.0 터보 스포츠 모델로 출시된다. 두 차량의 외관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차체크기(전장 4890mm·전폭 1860mm·전고 1450mm·축거 2830mm)도 같다.

실내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배터리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동급 최대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배터리 위치를 2열 시트 하부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대비 적재공간이 49L 늘어난 473L를 갖춘 것은 물론, 2열 시트 폴딩까지 가능해져 뛰어난 사용 편의성까지 자랑한다.

또 실내 군더더기는 빼고 중요한 것에만 적용해 센터페시아는 넓고 간결하다.

3세대 i-MMD(지능형 멀티모드 드라이브)시스템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 전용 가솔린 엔진에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 e-CVT, 리튬이온배터리로 구성됐다. 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엔

진의 작동을 최소화해 최고의 연료 효율성과 주행성능 실현에 주력한다.

다만 시속 45km로 주행 중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꽤 크게 느껴졌으며 급가속을 위해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거친 엔진음과 달리 힘이 약간 부족해 아쉬움이 남았다.

연비는 뛰어났다. 고속도로와 산길과 마을 골목, 와인딩 구간 등을 골고루 주행한 결과 연비는 20.3km/L를 기록했다. 복합연비 18.9km/L(도심 19.2km/L 고속 18.7km/L)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확인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별로 EX-L 4240만원, 투어링 45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쏘나타·코나 등 250대 대규모 시승 기아차 품격의 '살롱 드 K9 클래식 감상회' 한국지엠 '쉐보레 앰버서더' 뽐히면 시승 행운

완성차업계 휴가철 이벤트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고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현대차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전국 현대자동차 시승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250대를 시승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썸머 워크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벤트 대상 차량으로 벨로스터·아반떼·i30·쏘나타·그랜저·코나·싼타페·맥스크루즈 등 총 250대를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

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는 더 K9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시네마 클래식 음악 감상회 ▲THE K9 시승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 이벤트를 실시한다.

더 K9-렉스온이 함께 하는 고품격 음악 감상회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은 기아차가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 더 K9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9일 '살롱 드 K9(강남구 영동대로 소재)'에서 진행되며 올해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5회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7월부터 두 달간 총 100대의 시승차가 투입되는 대규모 고객 시승캠페인 '쉐보레 앰버서더'를 운영한다. 쉐보레 앰버서더는 총 1500여명의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선별된 일반 고객 100명과 쉐보레 차량을 소유한 고객 100명으로 출범하며 7월부터 두 달간 이퀴녹스와 볼트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 쉐보레 대표 제품 시승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